

2018년 설 가정 예배문

2018. 2. 16

인 도 : 가족 중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함

찬 송 찬송가(550장) 다 함

1.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던 이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2.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3.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산과 저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4. 땅 들어 바다야 많은 섬들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 도 말 은 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이심을 선포하며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롭게 허락해 주신 2018년에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향기를 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이 올 한해 영 육간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시간이 가족들 간에 사랑과 위로, 감사와 격려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봉독 골로새서 3 : 12~17 말 은 이

12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5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선포 행복한 가정의 시작 말 은 이

오늘은 설날입니다. 설날이 되면 저마다 새해 소원을 빕니다. 여러 가지 소원들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비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정의 행복'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첫째로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에는 사랑받은 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는 또 다른 책임도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 행복한 가정이 시작됩니다.

둘째로 '평화'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15절/새번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시고 공동체로 연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때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부어 주시면서 서로 하나 되어 평화의 모습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주님의 평화를 전하며 격려할 때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토해 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 속에 풍부하게 살아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평과 불만투성이입니까, 아니면 감사의 내용들이 끊이질 않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때, 우리가 소망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즐거운 날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씩 꿈꾸는 가정, 행복하고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 가기 바랍니다.

찬 송 찬송가(301장) 다 함

1. 지금까지 지내 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안에서 행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합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 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애나 험한 산길 헤멜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다
3.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기도문 다 함

설 성 묘 예 배

인 도 : 가족 중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함 께

찬 송 찬송가(438장) 다 함 께

1.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2. 주의 얼굴 뵈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 도 말 은 이
사랑의 하나님, 설을 맞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추모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과 손으로 느낄 수 없는 고인이지만, 고인을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기억과 마음속에 함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부족한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천국의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봉독 눅 24:32~35 말 은 이

32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33 곧 그 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34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말씀선포 믿음의 현재 말 은 이

우리는 지금 삶과 죽음의 자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삶과 죽음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짊어지는 그리움에 아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별의 상처가 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음에도 주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깊은 절망과 상실감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들이 주님과 함께 했던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잃고 그들의 고향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향한다는 것, 주님과 함께 했던 삶에 마침표를 찍는 걸음이었습니다. 주님과 영원한 이별을 고하는 걸음입니다. 함께 했던 삶의 자리를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은 이별을 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바라셨던 것을 깨끗하게 삶의 자리를 지켜내며, 주님과 함께 선포했던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후 절망하는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며 부활의 믿음과 삶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 주시고 빵을 떼어 축복하시고 나눠 주시자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생겨나자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삶의 현재를 더욱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오늘의 삶을 굳게 지켜내게 됩니다. 먼 훗날 하늘나라에서 재회하게 될 때, "나,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그리움의 크기만큼 더욱 열심히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죽음은 마음 아픈 일이지만,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게 합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고, 눈물 뒤에 기쁨이 있으며, 죽음 다음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를 기대하며 오늘 내 삶의 자리를 굳게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는 믿음의 현재입니다.

추모의시간 ..잠시 묵상하며 고인의 평안을 기도합니다 다 함 께

주기도문 다 함 께



기 독 교 증 앙 교 회

대한관리회